연합노보

www.newsunion.co.kr

특보 2012.5.10 (목)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공병설·편집인 정성호.구정모

“박 사장 나가고 공정보도 들어오세요” …‘공정보도 텐트’ 출범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10일 본사 앞 한빛공원에 ‘공정보도 텐트’를 치고 회사 구성원 다수의 뜻을 무시하는 박 사장을 향한 투쟁 수위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이날 정오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한빛공원 가운데에 여덟 동의 텐트를 세웠다.

텐트 시위는 지난해 미국 맨해튼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무기한 노숙 시위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부상한 투쟁 방식이다. 1%로 상징되는 소수 기득권이 성과를 독식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연합뉴스 노조원들도 텐트 농성을 통해 4.65%(38명)라는 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고도 연임 의지를 꺾지 않는 박 사장에 대한 투쟁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오전·오후·야간으로 나뉘어 24시간 텐트를 지키면서 청계천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연합뉴스 바로세우기투쟁’의 의의를 알린다.

텐트가 ‘시민선전전’의 현장본부 역할도 겸하는 셈이다.

아울러 평일 오전 10시부터 퇴근 시간까지 약 2시간씩 나눠 돌아가며 사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는 박 사장을 압박하기로 했다.

텐트 시위를 위해 노조는 일곱 동의 텐트와 취침용 침낭, 돗자리, 스티로폼, 랜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했다.

준비단장을 맡은 노조 김경희 홍보부장은 차 내부가 엉망이 되는 것을 무릅쓰고 자가용으로 모래를 운반해 오는 ‘희생’을 했다.

평소 캠핑을 즐기는 조합원들의 노하우 덕에 일곱 동의 텐트는 금세 완성됐다. 텐트엔 ‘바른 언론 우리 손으로’, ‘박정찬 나가고 공정보도 들어오고’ 등의 구호가 뒤덮였다. 텐트 주변엔 배너, 풍선, 피켓 등을 둘러싸 장식했다.

텐트 뒤로는 ‘박정찬 NO! 공정보도 GO!’라는 대형 현수막을 필두로 시민단체들의 지지 플래카드가 걸렸다.

이어 사진부 서명곤 조합원이 개인소유의 대형 텐트를 하나 더 가져와 설치하자 한빛공원 한쪽이 그럴듯한 ‘공정보도 텐트촌’으로 점령됐다.

텐트가 세워지자 조합원들은 그 안에 들어가 ‘공정보도 쟁취’ 스티커가 붙은 노트북을 펼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합원들은 2시 기자회견을 마친 뒤부터 차례차례 텐트를 지키며 새로운 투쟁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노조 김경희 홍보부장은 “야간조의 경우 술을 마시지 말고, 순서대로 두어 명씩이라도 깨어 있는 상태로 텐트를 지켜달라”고 주의사항을 전했다.

성명서

여론조사로 확인된 연합뉴스의 민의

박정찬 사장의 거취에 관한 전 사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연합뉴스의 민의가 거듭 확인됐다.

전 사원 816명의 75.61%인 617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참여자의 93.84%인 579명이 박 사장의 사장직 계속 수행을 반대하고, 6.16%인 38명만이 찬성했다.

재적 기준으로는 전 사원의 70.95%가 박 사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과가 조합원들의 결연한 투쟁의지뿐 아니라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는 비조합원들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본다.

사측이 여론조사 참여자의 징계 위협을 가하고, 조사 참여가 어려운 휴직자와 해외연수자 등이 재적인원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박 사장은 구성원을 존중한다면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박 사장 쪽은 압도적 찬성률을 토대로 시작된 노조의 연임반대 투쟁을 부정하면서 “연합뉴스는 노조뿐 아니라 전 사원들의 것”이라는 논리를 써먹어 왔다.

이후 노조와의 협상에서 사원 투표가 포함된 안을 제안했다가 태도를 180도 바꿔 이를 철회했다.

2면에 계속 ☞

“민심은 확인됐다, 남은 것은 결단이다”

“71% 반대가 연합뉴스 민의”…박 사장은 묵묵부답

연합뉴스 전 사원의 70.95%가 박정찬 사장이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박 사장은 침묵을 지켰다.

연합뉴스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조합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본사 7층 사장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전 9시15분께 모습을 드러낸 박 사장은 조합원들의 “민심은 확인됐다, 남은 것은 결단이다”란 구호를 뒤로하고 아무 말 없이 사장실로 향했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70.95% 대 4.65%라는 숫자가 사장 거취에 대한 연합뉴스의 여론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또 “(노조는) 사원들의 뜻을 담아 이 사태를 평화롭게 그리고 조속히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연합뉴스 전체의 민의를 무시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겠다”고 경고했다.

4~9일 진행된 사원대상 여론조사에는 전 사원 816명 가운데 75.61%인 617명이 참여해 이 중 93.84%인 579명이 박 사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회에선 전날 부서별 토론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정치부, 사회부, 국제국 등 몇 개 부서 대의원들이 나와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영두(정치부) 조합원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건 사원들이 다 같이 회사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오후 2시 본사 앞 한빛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노조는 “또 다른 시간 끌기나 노조에 대한 공격에 나선다면 그동안 자제해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 수위의 투쟁을 벌이겠다”며 “박 사장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 위원장은 “연임 반대라는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민심이 확인됐으니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 1면에 이어

이번 조사로 박 사장이 두려워 한 것은 노조뿐 아니라 연합뉴스의 전체 민심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는 박 사장이 자신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를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면 아직 대화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밝힌다.

특히 박 사장이 노조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박 사장이 또다른 시간 끌기나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동안 자제해 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 수위의 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12년 5월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쟁의대책위원회

오늘의 파업 키워드*

“서관 8층”

공정보도를 위해 현장과 출입처, 사무실을 떠난 조합원들이 편히 얘기하고 쉴 수 있는 그곳.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일 뿐이지만
어느새 열띤 토론의 장이자 놀이터,
혹은 잠자리(?)로 변신하는 그곳. 바로 서관 8층이다.

〈넓디넓은 공간, 비싸진 않을까?〉

센터원이 저렴한 가격에
서관 8층을 빌려주고 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조의 비용 부담이 만만하지 않다.
집 떠나 세들어 사는 와중에
문간방으로 쫓겨나는 설움이 이런 건가.
사장님, 우리 돈 좀 아끼자고요~

〈서관 8층 '이게 좀 아쉬워요~'〉

비데와 향긋한 물비누가 갖춰진 화장실을 사용하던
연합뉴스 조합원들에게 서관 8층 화장실은
마치 9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휴지통이 없어서 일 처리 후 휴지를 변기에 넣어야 할지
바닥에 쌓아두어야 할지를 매번 고민해봐도 매번 답이 없다.
변기에 무심코 넣었다가는, 넘치는 물을 피해 밖으로 달려나가다
다른 조합원들의 질책 어린 시선과 마주치는 민망한 상황이!!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원들에게
선배 조합원이 지나가면서 던진 '쿨'한 한마디.
"그냥 다른 층 화장실 써~"

〈연합 오락관, 바자, 강연회의 추억...〉

파업 57일째를 맞이할 때까지
조합원들이 함께 쌓아온 많은 추억들.

조합원들이 숨겨왔던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고,
서로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게 했던 연합 오락관.

안희 조합원의 뛰어난 말발과 고품질의 기부 물품들로
수백여만원의 성금이 걷혀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줬던
파업 바자회.

"파업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같이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설파한
하종강 교수의 강연이 열린 곳은 모두 서관 8층이었다.

한빛공원 집회가 끝나고 이동할 때 출입문 경비를 서는 분이
'아 서관 8층 가세요?'라며 옆문을 열어줄 정도로
서관 8층은 이제 우리의 아지트!

〈구석찾기 본능〉

파업이 50일째가 넘어가면서, 총회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조합원들은 각자
자신만의 둥지를 틀고 정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공병설 위원장의 말을
경청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했지만
소수는 어둑어둑하게 그늘진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수습을 떼고 새로 합류한
2011년 입사 조합원들도 벌써
방 한쪽 구석을 자기들의 자리로 정했다.
김수현 조합원은 "가운데 쪽은 너무 집중이
된 것 같아서 처음에 그쪽에앉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앉게 됐다.
동기들끼리 모여 있으니 편하고
서로 얘기하기도 좋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이 살짝 가려지는
기둥 뒤 명당자리를 차지한 모 조합원은
"숨어 있는 거라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눈빛만은 항상 공 위원장을 쫓고 있다"고
전하기도..

〈서관 8층 '말, 말, 말'〉

방송인 김미화 – "여러분이 이렇게 나선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노조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종강 교수 – "파업 승리의 제 1원칙은 '생각은 달라도 행동은 같이하라' 입니다"

공병설 위원장 – "연합뉴스 역사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순수한 각오를 다집시다"

새내기 박경준 조합원 – "먼저 일손을 놓은 선배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봅니다. 노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분노하라! 연합뉴스”